

군산예술의 전당에 유니버설 발레단이 온다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29·30일 공연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클래식 튀튀를 입은

발레리나들의 군무 환상적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가 군산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개관 3주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를 오는 29일과 30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유니버설 발레단은 국립 발레단, 서울 발레단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발레단으로 불리며 명품군무와 솔리스트들의 탄탄한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발레단이다.

특히 유니버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유니버설의 대표 레퍼토리아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여주인공이 뿜어내는 팔색조의 1인2역, 신비로운 호수가 장면과 화려한 왕국 장면 등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져 관객이 '발레'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전 세계가 감탄한 유니버설발레단의 군무는 푸른 달빛

특히 유니버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여주인공이 뿜어내는 팔색조의 1인2역, 신비로운 호수가 장면과 화려한 왕국 장면 등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져 관객이 '발레'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비치는 신비로운 호숫가에서 우아한 클래식 튀튀(Tutu)를 입은 18명의 발레리나들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 맞춰 시시각각 대열을 바꾸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정돈된 조화로움으로 한 차의 호트러짐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줘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티켓가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으로 인터넷 예매는 티켓링크(1588-7800)와 금강방송(1544-5400)에서, 현장에 매는 우리문고(445-0031), 동아서적(465-

7388)에서 가능하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음달 21일 배우 전원주, 심양홍, 이대호 등이 출연하는 부모님을 위한 악극 '꿈에 본 내 고향'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국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송파글마루도서관 등 26곳 선정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2016년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 등 26개 도서관을 선정했다.

국비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로 8년째, 전국 150여 개 도서관이 그 대상이다.

예산 지원을 받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유형·특성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특수키보드, 특수키보드, 점자정보단말기, 탁상용 독서확대기, 화면확대프로그램, 공공이용보정기, 눈높이조절책상 등 도서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등이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인 '장애인정보누리터'(2009년 개실)를 표준모델로 삼는다.

전국 공공도서관 규모와 여건에 맞게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20개의 공공도서관에 총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후 하반기에 주기적인 점검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강암서예대전 대상 '대나무' 그린 조경선씨

강암서예학술재단이 주최하는 제17회 강암서예대전에서 문화 부문에 '대나무'를 출품한 조경선(54·세종시)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한글부문에 이윤정(경기) '송기면 시만월대', 정민규(광주) '한용운 시 나의 꿈'이 문화 부문에 김미영(충북) '소나무'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상에는 김중호, 이광호, 이종암, 임효정, 조경애, 손주필 씨가 선정됐다.

또한 특선에는 이광호 씨 등 25명이, 입선에는 김상년 씨 등 10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들 입상자들에게는 2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각각 수여된다. 대상 1명에 1,000만원, 최우수 3명에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 우수상 6명에 각각 100만원씩 600만원이 지급된다. 그의 특선 25명과 입선 107명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5월4일 오후시 전주 강암서예관에서 개최되며, 수상 작품(특선이상)은 5월4~17일 전주 강암서예관에, 5월19~25일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 전시된다.

한편 강암서예학술재단은 강암선생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강암서예대전 후원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6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응모자 30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한국전통문화전당, 중국 쑤저우 박람회 참가

창의적 디자인 전문 박람회에

한지인형 · 미니어처한복 등

우리 전통문화 디자인 홍보



전당 입주 공방작가들의 전통 공예상품들이 쑤저우 교역박람회에서 전시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22~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제1회 문화창의의 디자인산업 교역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중국 유일의 창의적 디자인분야 전문 박람회로 산업과 디자인의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 촉진 목적으로 매년 4월 쑤저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 전당은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적 디자인이 가미된 전당 입주 공방작가들의 전통 공예상품들을 출품하기로 했다.

출품작은 한복과 전통혼례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한지인형(예담공예), 왕실 한복으로 꾸며진 상품화 가능한 미니어 처 한복(한복의 미), 전통적 목공방식으로 디자인한 조명등 와인랙(바오크라퍼) 등이다.

전당은 이번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주의 공예품을 홍보하는 물론 상품화가 가능한 작품들을 해외에 유통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궁극적으로는 전통문화 산업화 비전을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재덕 전당 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전당 입주 공방은 물론 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들이 해외에 많이 전시·판매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해외 판로 개척

을 통해 전주의 우수 공예품들이 13억 중국인들을 매료시킬 수 있도록 전시작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쑤저우는 전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지난해 11월 한국 예술가들이 쑤저우에서 전주한지와 한지공예작품 전시회를 가진 바 있으며, 12월에는 쑤저우 전통공예가들이 전주에 방문 쑤저우의 전통공예를 알리는 시연교류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해설사 보충교육

정읍시립박물관(이하 시립박물관)이 박물관 해설사 보충교육을 지난주에 운영했다.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매 주 토요일에 2016년도 박물관 해설사 보충교육을 실시,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2012년(1기)부터 2015년(4기)까지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립박물관은 "박물관의 주요 전시코너에 대한 강좌와 해설방법 및 실습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등 모두 6강좌를 편성해 수료생이 해설사로 실전배치 될 수 있는 자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무성사원에서는 (재)문화재이웃치연구소(대표 전경미)가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참가자들이 서원에서 유성벽을 입고 서원 의례와 사자소와 강습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성에 해설사의 모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각자 성격이 다른 해설사의 해설방법을 확인해봄으로써 자신의 해설방법의 함양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19일>

▷쥐띠
46년생: 상대는 사람들과의 구실수로 인해 신경 쓰는 하루가 되니 미리 예방하라.
6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어려움이 따르니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4년생: 작은 일에 대한 성취는 가능한 운이나 큰일을 할 때에는 불리.

▷소띠
49년생: 운이 전체적으로 막혀 있으니 매사 자중하라.
61년생: 동기끼리의 불화가 예상된다.
73년생: 매사에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기니 공손함을 잃지 마라.
85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한 운.

▷호랑이띠
50년생: 주변 사람들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말 없는 말이 청리를 가는 법이다.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되기 먼저 배고고 덕을 쌓아라.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결실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다른 사람에게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침착은 글음.
76년생: 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는 운이나 위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말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소위된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리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정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결실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은 운.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나 금전운은 불리하다.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가 게을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원숭이띠
55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9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큰일은 불리하다.
81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3년생: 시바수가 따르는 운.

▷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심신을 어지럽게 한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93년생: 원형은 불리하니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미뤄라.

▷개띠
49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9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동기끼리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하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얽혀있던 실태라가 풀리는 운이다.